

무더위 질병 및 대처방법

질병	증상	대처방법
 열사병	·고열(>40℃)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의식을 잃을 수 있음 ※ 신속 조치 미흡 시 사망에 이를 수 있음	·119 신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 ·체온을 낮춰 줌 ※ 의식소실 시 수분 섭취 금지
 열탈진	·땀을 많이 흘림(≤40℃) ·힘이 없고 극심한 피로 ·창백함, 근육경련	·시원한 곳으로 이동 ·수분 보충 ·시원한 물로 샤워
 열경련	·근육경련	·시원한 곳으로 이동 ·수분 보충 ·근육 마사지
 열실신	·어지러움증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음	·시원한 곳으로 이동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눕힘) ·의사소통 가능 시 수분 섭취
 열부종	·손, 발이나 발목이 부종	·시원한 곳으로 이동 (부종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눕힘)
 열발진 (땀띠)	·여러 개의 붉은 뾰루지 또는 물집	·환부를 시원하고 건조하게 유지 ·발진용 연고 등 사용
 일광화상	·붉고 따가운 피부 ·피부의 물집	·화상부위를 시원한 천에 대거나 찬물로 목욕 ·보습연고 사용 ·물집 터트리지 않기

119폭염구급대

119폭염구급대
그것이 알고 싶다!



- 구급차 내부에는 폭염 구급장비 9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음조끼, 얼음팩, 체온계, 생리식염수, 소금, 물스프레이 등)
- 구급대원 및 펌블런스 대원 응급처치 능력 강화를 위해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올라간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에어컨 성능확인 등 119구급차량을 점검했습니다.
- 폭염특보 등 기상정보를 수시로 파악해서, 준비물품을 탄력적으로 적재 보관합니다.



본 행동요령은 재난유형별로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제작한 것이므로 동일한 재난이라도 특수한 경우에는 행동요령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면 더욱 안전해요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폭염(열사병)



사고 사례

• 공사현장 근로자 열사병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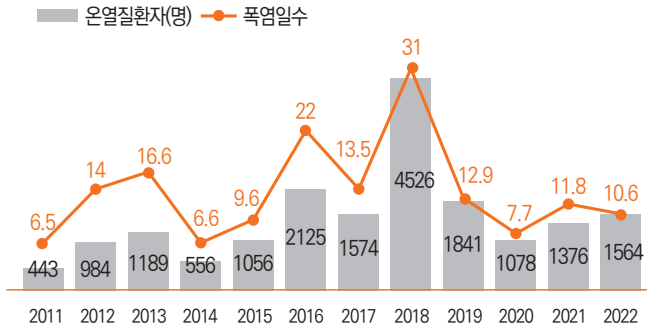
일 시	'22년 7월 15일 16시경
피해현황	50대 근로자 사망
사건개요	작업 후 휴식 중 심정지

• 노인 발일 중 열탈진 고열

일 시	'22년 7월 3일 13시경
피해현황	80대 노인 병원이송
사건개요	2시간 이상 연속 발일로 열탈진 발생

사고현황 및 주요원인

전국 폭염일수 및 온열질환자(최근 10년, '11~'22년)



• 2022년 온열질환 1,564명 중 경기도 22%(353명)

온열질환의 주요원인

- 폭염 시 고온에 장시간 노출 및 신체활동(운동, 외부작업 등)으로 인한 체온 상승
- 환기와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비닐하우스) 및 차량 등에서 장시간 노출

폭염 구분 및 기준

구분	기준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폭염 고위험군 및 위험장소

고위험군

고령자 및 독거노인

야외근로자

만성질환자

어린이

위험장소

논/밭

야외작업장

차안

폭염시 국민행동요령



1.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무더위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



2. 술이나 카페인 음료 보다는, 물을 많이 마시기



3. 가장 더운 오후 2시~5시에는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자제하기



4.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C내외로 유지해서 냉방병을 예방
※ 여름철 적정 실내 냉방온도: 26~28°C



5.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등 증세를 보이면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6. 축사, 비닐하우스 등에서는 환기를 하거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기



7. 어린이, 노약자의 안전을 위해 수시로 안부를 확인